



보해양조 정성공장 항공사진

‘품질은 보배의 생명이요 양심’이란 모토 아래 1950년 회사창립이후 한결같이 좋은 술 만들기에 노력하여 국내주류의 품질을 끌어올리는데 앞장서온 보해양조가 올해로 창립 57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다.

보해양조(주)

앞새주 · 매취순 · 보해 복분자주 NO.1 브랜드 유지
최고의 품질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 주류산업 건인
글로벌 마케팅 강화... 우리 술의 세계화에도 ‘박차’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권위)가 창립 57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다. 광주 · 전남 소주시장 점유율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보해양조는 지난 1950년 설립된 이래 국내 주류산업을 선도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주류 중견기업이다. 현재 앞새주를 비롯해 매실주 매취순, 보해 복분자주, 위스키 등을 제조 · 판매하고 있으며, 앞새주는 광주 · 전남 소주 부문에서, 매취순과 보해 복분자주는 매실주와 복분자주 부문에서 각각 NO.1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다.

보해양조 주요 연혁

1950. 02. 18.	보해양조 창립
1981. 12. 04.	보해장학회 설립
1982. 04. 01.	보해30, 매취(매실주) 시판
1984. 04. 01.	보해 중앙 연구소 설립(서울소재)
1986. 03. 05.	대표이사 임건우 취임
1988. 09. 16.	매취(매실주)가 세계인의 '88올림픽 상품'으로 선정
1989. 03. 27.	국내최초 무사카린 소주 시판, 장성공장 기공
1990. 05. 01.	5년 숙성 매취순 시판
1991. 05. 23.	장성공장 준공
1996. 03. 26.	프리미엄소주 김삿갓 시판
2001. 11. 30.	(주)보해통상,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제38회 무역의 날)
2002. 02. 01.	싱그러운 소주 일새주 출시
2004. 03. 23.	보해 북분자주 출시
2005. 11. 18.	보해 북분자주,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 채택
2005. 12. 03	보해 장학회 명칭을 '보해 덕천(德泉)장학회'로 변경
2006. 04. 21	보해 덕천장학회, 제8회 한경 마케팅 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 수상
2006. 07. 11	보해양조 장성공장 ISO9001 인증 획득
2007. 03. 02	22도 '천년 일새' 출시

故 덕천 일광행 회장 추모비(위), 흉상(아래)



보해 57년은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창업주 故 덕천 일광행 회장은 “품질은 보해의 생명이요 양심”이란 모토 아래 좋은 술로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사명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보해의 품질 개선 노력은 주류업계에 정평이 나 있으며 이러한 품질 경쟁은 우리나라 주류 산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1989년 국내 최초로 ‘무사카린 소주’를 개발하여 시판함으로써 이후 소주에 사카린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1996년 시판한 ‘김삿갓’은 소주의 격을 한 단계 격상시킨 프리미엄 소주로 이후 본격적인 소주의 품질 경쟁 시대를 열게 만들었다.

2006년 ISO9001인증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보해는 좋은 물이 좋은 술을 만든다는 믿음아래 1991년 약수의 땅 전남 장성에 초현대식 주류 공장을 건설했다. 장성공장은 노령산맥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해 전제품을 지하 253m 천연암반수로 술을 제조하고 있다. 장성공장의 좋은 물과 훌륭한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서온 보해는 2005년 총매출액 2,000억원대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보해의 계열사로는 보해식품, 보해매원, 보해상호저축은행, 보해통상, 창해에탄올 등이 있으며, 재단법인 보해 덕천 장학회는 1981년 이후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 중·고·대학생들에게 총 27억 3,8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성공장 견학관 시음실



보해는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잎새주'를 비롯해, 5년 숙성 '메취순',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보해 복분자주' 등을 개발해 세계적인 명주와 견줄 만한 제품으로 성장시켰으며, 나아가 우리 술의 세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해 정성공장 전경



정성공장 사무실 입구
지하 25.3M
천연 암반수

품질은 보해의 생명 이요, 양심

‘품질제일주의’를 지향하며, 57년간 주류산업의 외길을 걸어온 보해는 전제품을 노령산맥 산자락 지하 253m에서 뽑아 올린 천연 암반수로 술을 빚고 있으며, 최고의 수질과 활성탄으로 정밀여과 시켜 깔끔한 뒷맛으로 고객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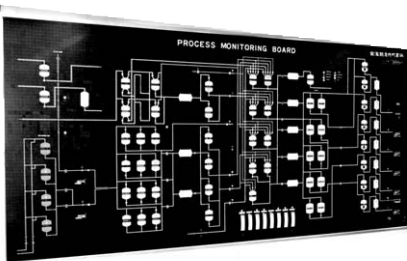


정성공장 사무실 및 견학관 건물

성장의 밑바탕에는 노사협력, 고객중심경영, 공격적인 영업활동 등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긴 보혜의 우수한 제품 개발을 빼놓을 수 없다. 보혜는 기업 성장의 원동력은 연구개발 능력이라는 신념아래 지난 1984년 국내 3대 주류연구소인 보혜중앙연구소를 설립하고 품질향상과 신제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1989년 국내 최초로 '무사카린 소주'를 출시해 주류업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했으며, 1990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매실주 '매취순'을 개발하여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명품 주류인 '매취순'은 매실주의 가능성을 예견한 故 임광행 회장의 선견지명과 장인정신, 정도경영의 대표적인 예이다. 1982년 매실주인 '매취'를 시장에 선보인 후, 연간 100만병도 소화하지 못해 매실주를 포기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가능성을 보고 지속적으로 매실주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매취'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각종행사에 세계인에게 선보여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는데, 보혜는 이를 계기로 매취의 리마케팅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1990년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알코올 도수를 14%로 내리고 숙성년도도 5년으로 늘린 '매취순'이 탄생하게 된다.

연구실내 제품검사



연구실내 제품 생산공정 상환식





목포공장 매취순 생산과정



장성공장 양새주 생산과정



장성공장 맥실주 원액저장시설



매취순은 시판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품귀현상으로 이어졌다. 품귀현상이 길 어지자 주류 유통업체들은 5년 숙성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공급량을 늘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고객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한다면서 매일 출고량을 점검하여 5년 숙성의 약속을 고수했던 일화는 아직도 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후에도 보혜는 1996년에는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소주 '김삿갓' 을, 1997년에는 편한 소주 '곰바우' 를 출시했고, 1999년에는 '천년의 아침' 을, 2002년에는 단풍나무 수액을 함유한 싱그러운 소주 '잎새주' 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선보였다. 이어 2004년 3월 보혜는 100% 국산 복분자로 천년의 맛을 살린 고품질 와인 '보혜 복분자주' 를 비롯해 2005년 매실주의 상큼한 맛과 와인의 진한 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취순 클래식' 을, 2007년에는 숙성 미가 뛰어난 '22도천년 잎새' 를 출시하는등 다각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보혜 주요 생산제품



매취(1882) - 무사카린 소주(1989) - 매취순(1990) - 텍시(1991) - 보혜골드(1992) - 보혜라이트(1992) - 시티소주(1994) - 레몬캡(1995) - 엠버서더(1995) - 김삿갓(1996) - 곰바우(1997) - 소프트 곰바우(1999) - 천년의 아침(1999) - 순금매취순(2000) - 호카이(2001) - 잎새주(2002) - 서편제(2003) - 보혜 복분자주(2004) - 매취순 클래식(2005) - 22도 천년 잎새(2007)

우리의 맛을 세계로, 글로벌 마케팅 '박차'

보혜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보혜 소주의 처녀 수출은 1984년 8월 일본 수출입서비스센터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10만달러어치 소주를 선적하게 되면서 이뤄졌다. 그리고 지난 1987년 6월 보혜소주와 매실주 '매취' 가 미국 ATF(주류, 담배 및 총포관리국) 기준에 합격하면서 미국 수출의 길이 열리게 됐고, 이어 독

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태국, 인도네시아, 중동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우리 술을 전파하고 있다.



신제품 천년잎새 생산현장



잎새주 제품생산

특히 보해는 '비단(緞)' 과 '寶(寶)' 등 일본수출용 제품을 따로 개발해 일본 시장에 연간 100만상자(700ml, 12병들이) 이상의 수출 실적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보해 제품의 수출을 맡고 있는 계열사 (주)보해통상은 지난 2001년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지난 2003년 4월에는 중국 상해에 '상해순보해 국제무역유한공사'를 설립해 중국시장에 매취순, 잎새주, 복분자주를 소개하고 있으며, 미국 LA에 소재한 삼화인터네셔널과는 '매취순' 연간 12만병, 보해 복분자주 연간 50만병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미국 전역에 우리 술을 수출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미국시장에 복분자주를 수출한 보해는 지난 2004, 2005년 우리나라 와인수출액 90%인 200만불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005년 11월에는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히스패닉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으며 멀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기업과도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수출을 준비 중이다. 한편, 보해는 2005년 11월 APEC 정상회의의 만찬주로 사용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린 보해 복분자주의 해외 인지도 제고 효과를 감안, 식생활 속 와인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유럽을 비롯해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까지 수출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www.bohae.co.kr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보해

보해 덕천장학회, 26년간 총 27억 3,800여만원 지원

젊은임세 봉사단...지역소외계층 대상 봉사활동 전개

지난 57년간 고객과 동고동락해온 보해양조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밀착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보해는 '재산은 살아 움직일 때 제 가치를 낼 수 있으며, 기업은 인재양성을 뒷받침해야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신념으로 1981년 재단법인 보해장학회를 설립했다. 2005년 보해 덕천장학회로 개명한 장학회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총 3천여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27억 3,8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이러한 공로로 1993년 우수 장학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바 있다. 또 보해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덕천 청소년 선도대상'을 23년째 후원하고 있는데 이 상은 평소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유공자들과 사회의 귀감이 될 선행청소년들을 발굴 표창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보해 덕천장학회 전달식



또한 보해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전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중 네 번째로 고용효과가 크다. 보해는 공개채용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보해 장성공장은 생산인력으로 10여명의 청각, 언어장애우를 고용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확대, 양성평



보해 젊은일세 사랑나누기

등사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보해는 지난 2003년 전남도가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보해는 지난 2006년 4월 8일 보해 직원들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일세 사랑 나누미' 봉사단을 출범하고,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우 등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해양조 이병우 홍보팀장은 '보해와 함께 지역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대학생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난해 광주, 목포, 순천지역에 그쳤던 봉사활동을 올해는 전주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Interview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 인터뷰

‘창조경영·디지털 경영으로 제2의 도약을’



“우리의 목표는 고객을 위한 노력만큼은 NO.1인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로 창립 57주년을 맞는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의 각오
는 남다르다. 이는 올초 신년사를 통해 ‘창조경영·디지털
경영’을 발판으로 한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
임 회장은 “21세기 기업 역량은 얼마나 창조력이 있느냐
에 달려있다”며 “과거에는 좋은 품질과 값싼 물건만 만들
면 1등이 됐지만 21세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R&D,
디자인, 마케팅, 창조적 인재 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
러진 창조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회장은 “한층 치열해진 주류시장
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밀착 마케팅 활동과
사회공헌활동,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보해 북반주와 매취순, 인쇄주의
수출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조 경영’과 함께 임 회장이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바로
‘디지털 경영’. 임 회장은 디지털 경영이 지식경영이자 열
린 경영이며, 창조 경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식은 공유할 때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때
더욱 확대된다는 임 회장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 회장은 “기업 내의 저장된 정보를 구성원 모두가 자유

자재로 공유, 상호간 협력과 교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내 학습 조직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노하우를 모아
전문적인 지식으로 결집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경영은 창
조경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창조경영과 디지털 경영이 고객과의 관계 역량을 강화하
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글
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때문이
라고 한다.

끝으로 임 회장은 ‘The Great Company’가 되기 위해서
는 고객을 위한 노력만큼은 No.1인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고객의 사랑과 사회의 믿음이 기업 존립의 원
동력”이라며, “기업은 누가 보아도 올바른 방법으로 이익
을 추구해야 하며 그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회에 도움
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해 덕천장
학회, 젊은 인쇄 사랑 나누미 봉사단 등 ‘나눔 경영’을 통
해 사회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늘진 곳에 지속적인 관심
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풍국주정공업(주)

더 큰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 기업

풍국주정은 1953년 창립 반세기 동안 한국주류산업의 변천과 역사를 같이 하면서 주정 산업의 외길을 걸어온 주정제조 전문업체로서, 소주의 원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최고품질의 주정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1994년에는 대구 성서공단에 최첨단의 에너지절약형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미생물학적 발효시설과 증류공정의 완전자동화시설은 물론 최종 부산물 회수시설까지 완비한 현대적인 신공장을 준공하여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 및 부산물을 전량 회수 가공하여 액체탄산 및 드라이아이스와 단미사료(건조주정박)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풍국주정은 원료로 투입된 모든 것이 전량 회수되어 재생산 되는 시스템과 폐수



정화시설까지 자체 완비함으로써 명실공히 클린팩토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9월에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VA)을 체결하는 등 풍국주정의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신식 다중 감압 증류시설 도입

풍국주정은 지난해 에너지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70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식 다중 감압 증류탑을 도입하였다.

신 증류탑은 계절별로 적절한 온수 재활용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입수로 사용하고, 리보일리를 활용하여 사용된 에너지를 재활용 함으로서 에너지 재활용을 극대화한 국내 최고의 현대식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이라고 한다.

특히 각 탑의 냉각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전축과 분축 기능을 최대한 적용함으로써 불순물 제거를 완벽히 하고, 관능과 맛이 우수한 품질의 주정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불순물의 농축도를 극대화 시켜 분리 제거함으로써 증류비용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IR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풍국주정은 1994년에는 코스닥 증권시장 등록을 통한 기업공개로 투명경영과 주주중시 경영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지난 반세기동안 정직과 신용을 제 일로 삼아 견실한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자타가 인정하는 안정성 있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풍국주정은 지난 2월 28일 증권선물거래소(KRX)와 코스닥상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구·경북지역 소재 코스닥 상장기업 기업설명회(IR)행사에 참

가했다. 이번IR(Investor Relations)행사는 증권업계 애널리스트, 언론사 경제부기자단 등 30여명이 직접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공장견학, 프리젠테이션 및 경영인과의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구지역 유수의 향토기업인 풍국주정은 지난 54년간의 성장과정,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노력으로 이루어낸 경영성과 및 2007년 경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또한 주정 및 소주 산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번 기업설명회를 통해, 풍국주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주정생산 기술과 노하우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적화된 설비와 친환경 공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임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 앞선 투자와 미래지향적 경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제2의 도약을 기약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풍국주정공업(주) 이한용 대표이사, '산업포장' 수훈



풍국주정공업(주) 이한용 대표이사는 지난 3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센터에서 권오규 부총리, 전근표 국세청장을 비롯한 내빈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41 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경영으로 주정업계를 선도하고 노사화합과 열린 경영을 실천하며 성실 납세를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주정업계에서 모범 납세 기업으로 정부 서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참경영과 성실한 납세이행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경제에 이바지 해온 풍국주정은 금번 산업포장 수상으로 한국 주정업계의 리더 컴퍼니로서 업계 위상을 더욱 높였다.

정기 워크숍으로 조직역량 강화

풍국주정은 임직원들의 우호증진을 위해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남 통영 소재 죽도연수원에서 초청강연, 체육대회, 명랑운동회, 화합의 밤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초청강연으로 경영학 박사인 윤횡만교수가 'fun(fun) 경영'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했다. 또한 장애물 달리기, 과자



옹기, 단체출넘기 등의 명랑 운동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참가자 모두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워크숍이 직원간의 업무협조 및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이자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풍국주정은 지난 반세기동안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 사회관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구성원 모두가 회사와 가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기업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풍국주정은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에 공헌하며, 또한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 성실납세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활동을 통해 주정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